

碩士學位 論文
英語教育에 있어서의 文化指導

指導教授 玄 琬 松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崔 英 姬

2002年 8月

英語教育에 있어서의 文化指導

指導教授 玄 琬 松

이 論文을 教育學碩士學位論文으로 提出함

2002年 5月 日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提出者：崔 英 姬



崔英姬의 教育學 碩士學位論文을 認准함

2002年 8月 日

審査委員長 _____
審査委員 _____
審査委員 _____

(國文 抄錄)

英語教育에 있어서의 文化指導

崔 英 姬

濟州大學校 教育大學院 英語教育專攻

指導教授 玄 琬 松

최근 들어 우리는 흔히 미국인, 혹은 다른 나라 외국인을 만나고 영어로 대화를 주고받을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외국어를 배우는 과정 속에는 반드시 그 목표국의 문화에 대한 학습도 포함되어야 한다. 영어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영어권 국민들의 습관, 성격, 관념, 철학 등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문화와 언어, 의복, 음식 등 우리 눈에 잘 보이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뜻한다.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를 연구해 본 결과 두 나라간의 대화 스타일이 한국인의 경우 말로 일일이 설명하려 하지 않고 눈치로 감을 잡는 상황 의존형인 반면에 미국인의 경우에는 말이 없는 것은 오해나 잘못 이해될 수 있는 소지가 많게 되므로 꼭 말을 하여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한다는 언어 의존도가 높은 편이다.

학생들의 교사호칭에 관한 것을 보면 미국인들은 인간은 평등하다, 특히 상하의 관계는 없다는 의식이 있어서 서로의 호칭에 있어서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더 친근감도 주고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보기 때문에 선생님을 teacher라는 호칭으로 부르지 않고 이름으로 불러지기를 원한다. 학생은 어느 선생님의 반(Mrs. Johnson's class)이라고도 표시한다.

※본 논문은 2002년 8월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위원회에 제출된 교육학 석사학위 논문임.

어른들 사이에서는 자기의 결혼상태를 처음 만나는 사이에서도 별 거부감 없이 묻고 대답하는데 이런 문화를 잘 모르는 한국인들은 이런 질문을 받으면 기분이 나빠지거나 이상한 사람으로 오해하게 되는데 그것은 문화적인 차이(결혼에 대한 가치관)때문이다. 결혼과 이혼에 대해 우리와는 달리 I'm married, I'm legally separated, I'm divorced등 분명하게 말하기를 꺼리지 않는다.

미국인들은 또한 거의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 가족 관계라든가 일원으로서의 충성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개성이나 개인의 권리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행동한다.

이처럼 영어권 특히 미국인과 한국인 사이에는 문화적 괴리가 크게 존재하며 따라서 영어의 지도에는 문화적 지도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한다. 그러면 학습자에게 어떻게 문화에 대한 지도를 해야 할 것인가?

필자는 학습자의 영어능력 (듣기능력, 독해능력 수준)에 따라 듣기만 가능한 경우에는 말을 듣고 행동으로 반응하는 audio-motor unit(T. P. R)등 초급수준의 지도방법을, 듣고 말하기가 가능한 정도인 경우 중급 수준의 지도방법인 역할극(role playing)등을 택했고, 고급수준의 문화지도 방법으로는 읽기, 듣기, 독해가 모두 가능한 학습자를 대상으로 미국 영화 관람하기, 외국나라로 여행 가기 등을 택하였다.

목 차

◆ 국문초록

I. 서론	1
II. 의사 소통의 기초로서 한·미 문화	4
1. 문화와 의사 소통과의 관계	6
2.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 스타일	8
3. 한국인과 미국인의 배경 문화	12
4. 한·미 문화의 의식구조의 차이	15
III. 상황에 따른 영어 표현	17
1. 신상의 표현	17
1) 선생님 호칭하기	17
2) 인사하기	20
3) 미국식 이름 만들기	22
4) 학년 말하기	24
2. 일상의 표현	25
1) 이해여부 점검	25
2) 주소 표기	26
3) 생년월일 말하기	27
4) 요금계산하기	28
5) 결혼여부 말하기	29

6) 소유관련 표현	30
7) 손님에게 도움주기	31
3. 영어 표현상의 오류	32

IV. 학교에서의 수준별 문화 교육 방안

1. 수준별 문화 지도 방법	39
1) 초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42
(1) Audio- Motor Unit	42
(2) Culture Asides	44
(3) Culture Assimilator	45
2) 중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47
(1) Culture Capsule	47
(2) Role Playing	48
(3) Culture Cluster	49
(4) Cultural Minidrama	50
(5) Proverbs	51
(6) Songs and Dances	54
3) 고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56
(1) Films	56
(2) A Trip to the Second culture area	56
2. 일반적 문화 지도의 방법	57
1) 게시판	58
2) 원어민 초청	58
3) 프로젝트	58
4) 실수담 소개	59

5) 신문과 잡지	59
6) 대화와 촌극	60
7) 자료 수집	60
8) 축제	60
V. 결론	62
※ 참고 문헌	65
※ Abstract	68



I. 서 론

우리 나라 제7차 교육과정에 나타난 외국어 교육의 영어과 목표를 보면 총괄적인 목표로 “일상생활에 필요한 영어를 이해하고 사용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의사 소통 능력을 기른다. 아울러 외국 문화를 올바르게 수용하여 우리 문화를 발전시키고 외국에 소개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목표로, 가) 영어에 흥미와 자신감을 가지며 의사 소통 능력을 할 수 있는 기본 능력을 기른다. 나) 일상생활과 일반적인 화제에 관해서 자연스럽게 의사 소통을 한다. 다) 외국의 다양한 정보를 이해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른다. 라) 외국의 문화를 이해함으로써 우리 문화를 새롭게 인식하고 올바른 가치관을 기른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¹⁾

이 목표는 언어의 4기능(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을 기르며 외국 문화를 이해하고 우리 문화를 외국인에게 소개시키며 궁극적으로 외국 문화의 이해를 통한 우리 문화 창조에 이바지하는데 있다는 말과 같다.

그렇다면 과연 문화(culture)란 무엇인가. Robert Lado(1957)에 의하면 문화란 그 국민의 생활양식(ways of people)이다.²⁾ 문화란 한 민족이 공유하고 있는 습관, 신념, 태도, 가치(shared customs, beliefs, attitudes, and values)이고 오랜 세월을 내려온 그 종족만의 관습이다. 문화란 엄밀한 의미에 있어서는 언어라고는 말할 수 없지만 그 언어가 속한 문화권 내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경험과 사상을 나타내는 수단이므로 언어 속에는 반드시 문화적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러므로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이 그 언어의 문화권 내에서 생활을 통한 경험이 없거나 문화적인 내용에 관한 지도를 받지 못한다면 영어가 모국어인 사람들과 행동이 일치할 수 없게 되고 또 대화를 나눌 때 엉뚱한

1) 교육부(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1), 대한교과서, p.31.

2) Robert Lado(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p.110.

오해가 생겨 전하려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 없게 된다. 즉 그 나라의 국민들에게는 그 습관들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나 다른 나라 국민들에게는 의혹과 주시를 받게 될 수도 있게 된다.³⁾

그렇다면 영어가 속한 문화권내 생활을 통한 경험과 문화 내용에 대해 어떻게 영어 교사로서 학습자들에게 가르칠 것인가에 대한 연구가 있어야 한다.

생활을 통한 경험 즉 현지로 장소를 옮겨서 그 토박이들과 사회적 심리적 접촉을 하는 것이 문화를 가장 많이 빨리 습득할 수 있는 길이라고 할 수 있다. 영어를 잘 하기 위해서는 먼저 영어권의 사람들과 직접 접촉하여 같이 생활하면서 배우는 것이 정확하게 배울 수 있는 지름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는 많은 돈과 어려움이 따른다. 시간적으로는 빨라 질 수 있으나 경제적인 부담이 많이 따르게 되는 단점이 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 영화를 많이 감상한다거나 음악, 책 등 문학적인 여러 가지 재료를 통하여 문화를 배우고 있으며 최근에는 CD-ROM, 컴퓨터를 통하여서도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많이 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의사 소통(communication)이라는 것은 서로간의 오해나 당황함이 없이 바르게 의사를 전달하는 것 만큼 영어 교육을 현재 맡고 있는 교사로서 아직도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은 바로 문화 지도다. 처음 외국어를 접하는 학생들에게 지구상에는 다양한 언어와 더불어 다양한 문화가 있고 각 문화간에는 차이가 있음을 설명해 주어야 한다.

우리의 문화가 외국 것 보다 낫다 못하다는 등의 문화적 편견을 가지지 않도록 하고 서로 다른 문화에 대해 존중하는 태도를 가져야 함을 지도하여 줄 필요가 있다. 또 가능하면 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넓힐 수 있는 자료도 많이 체계적으로 수집하여 소개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문화에 대한 이해와 지도가 잘 되어 있을때 우리는 미국인과 오해가 없는 의사 소통이 가능할 것이다. 영어라는 언어의 학습과 바른 미국 문화의 이해만이 우리가 목표로 둔 영어 능력의 신장이라는 문제를 해결할

3) 원 경식(1980), 「언어와 문화」, 서울: 형설 출판사, p.148.

수 있다.

21세기를 맞이하는 우리에게 국제화 현상은 알게 모르게 굉장히 가깝게 생활 속에 스며들고 있다. 새로운 만남을 갖고 그 관계를 더 좋게 발전시키려면 형식적인 것을 넘어 상대방의 사고 방식이나 기호 생활 습성 등을 잘 알아야 한다.

필자는 영어권 문화 특히 미국 문화에 대한 철저한 이해가 없이는 영어 학습자의 영어 구사력을 향상시킬 수 없다는 전제하에 영어 교육에 있어 미국 문화의 배경과 내용을 한국 문화와 비교 검토하면서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자주 접하는 영어 표현에 나타난 미국 문화의 특징을 이해하고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는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에게 어떻게 문화 내용을 지도하면 바람직한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제 1장에서는 영어 교육상 문화 지도의 필요성과 이 논문의 목적 및 취지를 언급하였다. 제 2장에서는 문화와 의사 소통과의 관계,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 양식(style), 한국어와 영어의 배경 문화의 비교, 한국 문화와 미국 문화의 의식구조에 대해 알아보고, 제 3장에서는 실제적인 영어 표현 속에서 미국 문화의 특징을 토론하였으며, 제 4장에서는 학교에서의 수준별 문화 지도의 방법을 제안하였으며 제 5장에서는 결론을 내렸다.

II. 의사 소통의 기초로서 한·미 문화

김 영식(1986)에 의하면 우리가 어디까지 문화를 알고 있는지 스스로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기준으로 최저, 양호, 우수 항목을 들고 있다. 최저란 특수한 문화를 형성하는 교양 있는 공통 경험 중에서 제일 중요한 요소인 언어를 의식하고 외국의 지리, 역사, 문학, 예술, 사회 관습, 현대 문화 등에 관해 초보적인 지식을 가지는 것이다. 양호란 외국의 문학 작품에 대해 직접 지식을 가지며 외국 문화와 자국 문화의 주요한 유사점이나 상이점을 이해하고, 외국 국민이나 그들의 문화에 대해 체계적 지식을 가지는 것이며, 우수란 여행이나 주거에 의해 개인적 체험, 또는 외국 문화의 조직적 기술의 연구, 또는 문학이나 예술의 연구를 통하여 외국 국민이나 그들의 문화를 명확하게 이해하는 능력이다.⁴⁾

또 Seelye(1985)는 문화지식은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 필수적이라 보고 문화지식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⁵⁾

1. Recognizing that each culture has its own set of culturally conditioned behavior;
2. Understanding that social variables like sex and age affect behavior;
3. Being able to act appropriately in conventional situations;
4. Being aware of the cultural connotations of common words;
5. Being able to distinguish valid from invalid generalizations about a culture;
6. Being curious about a culture and a people who belong to it;

4) 김 영식(1986),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연구」, 한국 교육개발 연구원, p.29.

5) Ned Seelye(1985), *Teaching Cultur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p.98.

한편 문화는 하나의 커다란 얼음 덩어리(iceberg)로 볼 수 있는데 수면 위에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언어, 음식, 의복 등의 문화측면이 있고 수면 밑에 잠기어 있어서 볼 수 없는 의사소통 양식, 신념, 태도, 가치, 인식 등의 문화측면이 있는 것이다. 동일 문화권에서는 그리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만약 다른 문화권의 사람끼리 의사 소통을 해야 한다면 그 사람들의 이야기 내용, 방법, 양식 등은 문화에 따라 각각 달리 표현되어질 것이다. 비교 대상이 되는 개개의 문화를 뚜렷하게 이해함이 없이는 두 문화의 비교를 바랄 수 없다. 어떤 나라의 문화를 공유했다고 함은 그 나라 국민들의 습관, 신념, 행동, 가치관을 나눈 것 못지 않게 그 나라의 언어, 의사소통 양식도 함께 했다고 본다.

Adaskou, Britten and Fashi (1990)는 문화의 4가지 의미를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These included the aesthetic sense (e. g., cinema and literature), the sociological sense (organization and nature of family, relations, customs, material conditions), the semantic sense (the conceptualization system which conditions perceptions and thought processes), and the pragmatic sense (e. g., background knowledge, and social and paralinguistic skills). Given the current focus on communicative language teaching, however, it is important to note that cultural competence is the basis of communicative competence. The concept of communicative competence must be embedded in the notion of cultural competence: interpreting the meaning of linguistic behaviour means knowing the cultural meaning of the context which it occurs.⁶⁾

6) Michael Lessard-Clouston(1992), "Assessing Culture Learning: Issues and Suggestions" ,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Vol.48, No.2, p.328.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라 할 수 있는 한 영 양어간의 상호 의사 소통 (cross cultural communication)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어가 갖는 사회 문화적인 배경과 정서적 배경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⁷⁾

1. 문화와 의사 소통과의 관계

영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은 원활한 의사 소통 능력의 향상에 있다. 의사 소통이 문화요, 문화가 곧 의사 소통이라는 Hall(1959)의 지적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와 의사 소통은 불가분의 관계에 있고 또 언어는 문화를 반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화를 이해하지 않고서는 외국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으며 또 그 사회의 언어사용 규칙에 맞는 표현을 사용하기 어렵다.⁸⁾

의사 소통이라는 것이 의사를 소통하고 있는 쌍방간에 이루어지고 있는 문화적 행사라고까지 이해되고 있는 이유는 언어를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의사 소통의 일부로 사회 언어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중요성이 최근에 지적되었기 때문이다.

물론 이 세상에는 문화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진행되는 의사 소통도 있다. 그것은 과학 분야에서 사용하는 언어이고 의사 소통이다. 과학적 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의사 소통은 극히 객관적 이어서 문화적 영향을 전혀 받지 않고 진행될 수 있다.

그러나 그런 식의 정보 교환을 제외하면 과학자들도 문화의 영향을 받는 의사 소통을 하기 마련이다. 더구나 외국어를 배우는 목적이 과학정보의 교환만은 결코 아니다. 고도로 전문적인 과학 정보 교환을 제외하고 어떤 유형의 의사 소통이건 모두가 문화의 영향을 받는다는(communication

7) 강 경희(1991), “문화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2.

8) *Ibid.*, p.1.

patterns are influenced by culture) 사실이 사실로서 인정되고 있다.⁹⁾ 의사 소통과 언어 그리고 문화와는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이며 그 언어의 유창성과 문화의 유창성에 따라 효과적인 의사 소통이 일어날 수 있다.

의사 소통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는 신념(belief), 지각(perception), 가치(value), 태도(attitude), 세계관(world view), 사회 조직(social organization), 사고 유형(pattern of thought), 언어(verbal thought) 등이며 이상적인 의사 소통을 위해서는 언어 능력뿐만 아니라 그 언어권의 문화에 대해서도 풍부한 지식과 경험이 수반되어야 한다.¹⁰⁾

언어마다 그 특유의 문화적 내용을 담고 있는 어휘나 특수한 표현 방법이 있으므로 영어 학습에 있어서 자기 문화와 영어 사용 민족의 차이, 즉 두 문화권 사이에 놓여 있는 사고방식의 차이점, 습관 및 사회적인 예법의 차이점, 인간관계의 차이점 등을 이해하지 못할 때는 의사 소통에 있어 엄청난 왜곡이 발생하여 상호 공감적 이해를 갖기 어렵다. 그리고 이런 오해나 실패의 원인을 상대방에게 돌릴 수도 있다.

문화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사는 사람들의 행동양식, 언어 사용, 관습 등 문화적 내용을 이해하고 평가하며 자국의 문화와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인식하여 목표언어 사용자들과 공감대를 형성하여 그들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전보다 쉽게 학교나 사회에서 원어민을 대할 수 있게 된 현실에서 학습자들에게 원어민에 대한 적절한 예절과 이해 지도가 있어야만 그들을 이해하여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질 것이다.

9) 최 용제(1982), 「외국어 교습의 원리」, 고려원, p.162.

10) 이 기준(2000), “영어교육에 있어서 한·미 간의 문화 비교연구”, 한남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12.

2.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 스타일

폐쇄된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같은 감정을 공유하는 한국인들은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알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여러 이민족으로 구성되어 있는 미국에서는 말하지 않고서 어떻게 알 수 있느냐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대화를 기피하는 한국인 태도와는 달리 미국인은 언어가 유일한 전달 수단으로 서로의 의사를 전달한다고 보고 있다.

한국인은 완전한 표출보다는 상대자의 추리에 맡기고 논리적 사고보다는 눈치나 육감에 의존한다. 대인 관계에서도 한국인은 안색과 어조와 분위기에서 정보를 파악하고 상대자의 마음을 헤아려 본다. 즉 언어 의존도가 낮아지고 상황 의존도가 높아진다. 이러한 점은 다음 인용문에도 잘 나타나 있다.

In connection with this, there is "nunchi"(눈치), a kind of sense by which Koreans can detect whether others are really pleased and satisfied or not. Kim(1995:7)and Steinberg explain about "nunchi" which is literally translated as "eye-measure"; "nunchi" is a kind of "sense" , but it cannot be simply be explained as "sense." "nunchi" is an interpretation of others' facial expressions or what they say plus a mysterious "alpha" hidden in their hearts. "nunchi" is usually an interpretation by the lower social class of the feelings of the higher social class, necessary in an unreasonable society in which logic and inflexible rules have no places. Americans do not compromise or concede when it is contrary to common sense, regardless of the rank of the other person. But in our case, if we try to explain something to a superior on the basis of common sense, this is regarded as impertinent and reproachable. Therefore, there is no other way but to solve problems with "nunchi" detecting the other person's facial expression

plus "alpha" hidden in his inner heart.¹¹⁾

반면에 미국인은 자기 의사를 언어를 통하여 아주 빨리 정확하게 밖으로 표출한다. 여러 인종의 혼혈국인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즉각적으로 표현하고 말과 말을 부딪히게 하고 말로 확인하려고 한다. 미국인들이 자기들끼리 자주 "Do you understand?" "See what I mean?" 이라고 묻는 것도 우리에게 묘하게 들리지만 내용의 정확한 전달을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감정 표현에 있어서도 회로애락, 호감과 증오를 똑똑히 말로 나타낸다. 즉 언어의 의존도가 높다. 한국인은 전달 내용보다 상대자의 기분을 존중하려고 하기 때문에 미국인과 대화할 때 yes, yes를 연발하다가 나중에 가서 부정하여 상대자를 당황시키는 수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하며 솔직하게 말하는 것이 예의에 맞는 것이지 솔직히 말했다고 해서 대인관계가 나빠지는 일은 절대 없다.

Do you mind if I smoke here? 하며 남의 집을 방문하여 담배가 피우고 싶을 때 그 집주인에게 물었다면 집주인은 얼마든지 yes, no에 대한 의사를 솔직히 말한다. no라고 집주인이 허락했다고 해서 감정이 좋거나, yes라고 거절당했다 하여 집주인에 대해 감정이 나빠질 미국인은 하나도 없이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기 때문에 모두들 자기의 의사 표현을 솔직히 한다.

미국인에게 정직하고 솔직하다는 것은 체면을 지키는 것보다 훨씬 중요하다. 그래서 미국인들은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다. 자기 자랑은 물론 실수 또한 있는 그대로 예기하는 모습을 자주 접하게 된다. 반면 한국인들은 겸손이 미덕이고 자신의 부족한 모습은 숨기려고 한다. 또한 남이나를 어떻게 볼까 하고 남의 시선에 신경을 많이 쓴다.

미국인들은 서로 모르는 사이라 하더라도 Hi! 라고 인사를 하는 게 보통이다. 하지만 한국인은 안면이 있다 해도 잘 아는 사이가 아닌 경우에는 모르는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가 하면 잘 알지도 못하는 사람이 인사를 하면 그 사람을 이상하게 생각한다. 또한 듣고도 무시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

11) 박 명석(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서울: 한신 문화사, p.92.

데 이러한 것은 외국인이 우리 나라에 와서 처음으로 겪게되는 문화상의 차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인들은 먼저 예기를 거는 것을 바보스럽다고 생각한다. 외국사람과 같이 일하게 되는 직장들이 점점 많아지는 현실에서 그들의 대화 스타일을 충분히 알고 있다는 것은 의사소통의 절반은 성공했다고 본다. 문화의 가장 중요한 그들의 개념, 생각들을 미리 알 수 있는 것도 의사소통에서 성공할 수 있는 길이다.

침묵을 싫어하는 미국인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는 것보다는 낱씨에 관해서라도 얘기하는 편을 좋아한다. 또 어떤 것에 대해 설명하는 것을 좋아한다. 만일 이해하기 힘든 것이 있다면 주저 않고 묻는 사람에게 그들은 큰 점수를 준다. 꼭 필요한 말만 하는 사람에 대해 신뢰를 가지거나 침묵은 금이라고 생각하는 한국인들과는 아주 다르다.

이와 같이 미국인은 언어를 많이 사용하려는 경향이 한국인에 비해 높으며 표현하기를 좋아한다고 볼 수 있다. 의사 소통시 솔직하며 대화의 주인공이 되는데에 주저하지 않고 알고 있는 정보가 있다면 다 주려고 최대한 말을 많이 하는 편이다.

자연 순응적이고 자기 주장이 없고 감정의 표현이 별로 없는 한국인의 성격에 비하여 논리적 사고와 회로애락, 호감, 증오와 같은 감정을 남을 의식하지 않고 솔직히 말할 수 있는 미국인들의 성격은 하나의 문화의 차이라고 말할 수 있다.

다음은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 스타일을 비교해 본 도표이다.¹²⁾

한국인	미국인
They do not speak.	They talk too much.
They do not make sense.	They always interrupt.
They avoid direct questions.	They brag about themselves.
They keep silent.	They ask too many questions.
They ask questions in unusual places	They do not help people even when they can.
They just leave without saying anything.	They are not careful when they talk about people.
They never start a conversation.	They only talk about what they are interested in.
They never say anything about themselves.	They are always getting excited when they talk.
They play down their own abilities.	They talk to strangers or people they do not know.
They only want to talk to close acquaintances.	They always talk first.
They avoid situations of talking.	They think they can predict the future.
They are too slow to take a turn in talking.	They always talk about what is going to happen later.

12) Robert Lado(1988), *Teaching English Across Cultures*, Singapore: Kim Hup Lee Printing Co., p.164.

3. 한국인과 미국인의 배경 문화

개성이라든가 국민성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국토, 환경 등 주변을 둘러싼 환경과 문화가 녹아 들어가 쌓인 역사적 경험으로 이루어진 것이라 볼 수 있다.¹³⁾한국인은 같은 혈통, 같은 문화, 같은 풍습을 지닌 단일 민족이고 종교상의 과격한 대립도 없다.

여름에는 태평양으로부터 많은 우기를 가져오고 겨울에는 북방 대륙으로부터 냉기를 가져오는 풍토에 살아왔기 때문에 수용적, 인내적 성격이 형성되었고 자연에 순응하고 자연에 대립하지 않는다. 자연의 혜택으로 사는 집단이라서 자연의 이법을 깨닫고 자연의 법칙에 순응하는 것만이 그들의 생활을 안전하게 하는 방편으로 알고 살아온 생활 태도이다. 이어령(1962:8)은 자연의 혜택으로 살아왔다고 생각하는 한국인의 자연주의적 사고의 특색은 자연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대립감이 미약하다는데 있다고 하였다. 인간을 자연과 대등한 입장에 놓지 않고 자연의 일부라는 입장에서 사물을 생각하였다.¹⁴⁾

한국인은 가족적인 사회에서 태어나서 자라나며 자기 집안 또는 소속하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을 구별하는 의식이 강해진다. 그러기에 곧잘 한국인은 “I belong to Han Il bank.” 라고 자기의 소속처를 의식하며 언어로 표출한다. 이에 대하여 미국인은 “I work for Mr. Wagner.” 즉 “Wagner 회사를 위하여 일 해주고 있다.”라는 의식을 갖고 있다. 미국인의 유동 의식에 반하여 한국인은 귀속 의식이 강하다. 따라서 근무처 같은 것도 쉽게 옮기려고 하지 않는다. 선배니 은사니 하는 개념도 미국인에겐 존재하지 않는 개념이다.

미국의 주택, 자동차의 모양과 색채의 다양성에서 볼 수 있듯이 미국인들은 선택의 여지가 많은 사회 속에서 자라 왔기 때문에 소신대로 행동을 할 수 있으며 남의 눈을 의식하지 않는 자유스런 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복

13) 김 자경(1998), 「공격적인 포크문화, 수동적인 젓가락 문화」, 자작나무, p.264.

14) 이 어령(1962), 「한국의 풍토와 사상」, 일신사, p.8-9.

장에 있어서도 유행이 없이 날씨가 본인의 상황에 따라 개성 있게 남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는 차림은 아주 그들만의 고유한 성격이다. 미국 평화 봉사단원들이 처음 한국의 학교를 참관했을 때 똑같은 교복을 입고 기립, 경례, 착석의 호령 하에 일제히 행동하는 것을 보고 기이감보다는 가벼운 불안감마저 느꼈다는 지적에서 볼 수 있듯이 개성이 강한 그들의 특징은 앞으로 알아보려고 하는 영어 표현에서 많이 엿볼 수 있다.

자기 억제를 그다지 할 필요가 없는 배경 문화를 가진 미국인들은 형식, 예의에 신경을 쓰는 우리들과는 달리 솔직하게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표출한다. 한국 사람들은 초면인 경우 서로 말을 주고 받기를 꺼리지만 형식 의례를 경시하는 미국인은 초면인데도 유머를 섞어 가며 재미있게 얘기하고 또 그런 회화를 정말 즐거워한다. 비형식적인 면을 중시하는 문화 배경이 깔려 있음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국인은 일의 능률보다 일에 관련된 인간관계를 중시하지만 미국과 같은 경쟁 사회에서는 능률이 전부이다. 일할 때는 오로지 일만 하게 되어 있는 사회적 구조가 되어 있다.

이렇게 한국인과 미국인은 상반되는 면을 많이 갖고 있는데 미국인들의 특성을 열거 해보면 그들은 거의 모든 일에서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개인적인 그리고 개성이나 개인의 권리를 중요시하는 사람들이다. 웬만하여서는 본인이 결정 내리는 것이 기본인 독립적이고 자신을 믿는 편이며, 자신을 활짝 드러내는 것을 별로 꺼리지 않는 직선적인 성격들이다. 간편한 옷차림을 좋아하고 손님을 접대할 때도 격식에 얽매이지 않는 비형식적이며, 어디까지가 농담이고 어디까지가 진담인지 모를 정도로 가벼운 농담을 잘한다.

사람들에게 의존하지 않으려는 미국인들의 성향 때문에 자신의 방식 안에서만 선을 그은 상태로 우호적이며, 모든 것을 돈으로 환산하는 그리고 돈에 관련된 일이라면 어떠한 예외도 없이 엄격성을 보이는 그래서 종종 물질적이라는 비난을 받을 수 있는 소지가 많으며 모든 생활이 예약으로 이

뤄지는 사회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시간관념이 철저하다. 그리고 대부분 굉장히 정열적이고 활동적이며 공부만 하는 모범생보다는 창의적이고 개성을 살리는 예능에 뛰어난 학생, 즉 다양성을 중시 여기며 그러한 학생이 인기도 있다.

여기에서 한국어와 영어의 배경 문화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¹⁵⁾

한국어	영어
계절풍적 풍토에서 농경생활	해양성적 풍토에서 무역생활
자연주의적 사상	이성주의적 사상
언어의존도가 낮다.	언어의존도가 높다.
감정을 언어로 표출하지 않는다.	감정을 언어로 표출한다.
가족집단적 심정 내지 연대감이 강하다.	자주자립의식이 강하다.
담화를 기피한다.	담화를 기피한다.
일반화시키는 표현을 곧잘 쓴다.	일반화시키는 표현을 피한다.
자기자신을 너무 낮춘다.	자기자신을 나타내 보이려고 한다.
형식의례를 중시한다.	유머러스한 표현을 쓴다.
심각, 진부한 표현을 쓴다.	형식을 싫어하고 솔직을 좋아한다.
Yes, No가 불분명하다.	Yes, No가 분명하다.
남을 너무 의식한다.	능률 제일주의이다.
인간관계에 신경을 쓴다.	자기에게 성실하고 주체행동적이다.
수용적 복종적이다.	스스로 선택하는 정신이 강하다.
귀속 의식형이다.	유동 의식형이다.

15) 강 수연(1988),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한신문화사, p.15.

4. 한·미 문화의 의식구조의 차이

미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시되는 것은 시간이며 시간의 낭비는 가장 최악 시되는 경향을 갖고 있다. 시간제 노임도 이미 확립되어 있다. 그래서 미국 인들은 어렸을 때부터 시간 엄수가 중요하다는 것을 배우며 그럼으로써 어린이들은 시간 엄수와 시간 그 자체를 존중하게 되는 것이다. 한국 문화권에서는 강대국들의 억압을 받고 살아왔기 때문에 억눌림도, 고통스러움도 세월이 흘러가면 해결된다고 믿고 있다. 그래서 세월이 약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

불교의 영향을 받아 주객과 객관, 주체와 객체의 구별이 없는 한국인의 의식구조 때문에 논리적 사고와 웅변술이 발달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미국인의 강렬한 자기 주장 즉 주객 명시의 발상은 합리화, 근대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여러 인종의 혼혈국인 미국은 모든 인종을 동등하게 여기며 남자와 여자의 권리도 동등하여야 한다는 의식이 지배적이다. 미국인들의 가장 뚜렷한 의식구조는 독립 의식(independence), 인간 평등(equality of person), 육체적 노동 중시(hard work), 직접성(directness in communication), 정직성(honesty)을 들 수 있다.

강 수연(1988:30)이 분류해 놓은 한국과 미국의 의식구조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한국 문화

유교 및 불교의 잠재적 문화

관습 존중

추상적 대충 문화

전체주의적 사고

남성 지배적

체면과 형식주의 중시

종합적 사고

연역적 사고

관념적 사고

법질서 경시

권위주의

약속 시간 경시

육체적 노동 경시

간접성

미국 문화

기독교적 사고 문화

과학적 사고방식

개인주의적 평등주의적 사고

남녀평등

실용주의적 의식

이성주의

대칭적 인간관계

분석적 사고

귀납적 사고

논리적 사고

편의주의

약속 시간 엄수

육체적 노동에 가치 부여

직접성



제주대학교 중앙도서관
JEJU NATIONAL UNIVERSITY LIBRARY

III. 상황에 따른 영어 표현

앞장에서 우리는 미국인과 의사소통에 오해나 당황함을 없애기 위해 한미 배경문화의 내용에 대해 알아보았다. 본 장에서는 학교나 혹은 다른 곳에서 영어를 접하게 될 때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표현들을 미국 문화의 특징과 연관시켜 알아보며 교사들이 영어시간에 어떤 점에 관심을 두어야 하는지를 지적하기로 하겠다.

1. 신상의 표현

본 절에서는 다른 문화권의 사람을 어떻게 호칭하는 것이 바람직한가를 알아본다. 특히 학생의 입장에서 선생님 호칭하기, 교사에게 인사하기, 미국 문화에 익숙해지기 위한 한 방법인 미국이름 만들기, 학년 표시하기에 대해 검토한다.



1) 선생님 호칭하기

서구 문화의 이성주의와 개인주의 사상이 뿌리내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문화는 평등의 바탕 위에 수평적이고 집단 소속 감정 속의 체면보다는 주의를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토론하며 초면, 구면의 구별 없이 누구에게나 개방적이다. 웃어른을 공경해야 한다고 철저히 교육받은 한국의 어린이들은 감히 선생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기 때문에 원어민(native speaker) 선생님이든 한국인영어(Korean English) 선생님이든 무조건 선생님(teacher)이라고 부른다. 영어권에서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부르거나 인사할 때 teacher 라고 하지 않고 선생님 이름(first name)이나 선생님 성(last name) 즉 Mr. Kim, Mrs. Lee, Miss. Park 등의

호칭으로 부른다. 요즘엔 결혼한 여자 선생님과 결혼하지 않은 여자 선생님의 차이를 드러내지 않는 Ms.(미즈) 라는 호칭도 많이 쓴다. “Hello, teacher” 하는 표현이 틀린 것은 아니나 이것은 “Hello, son.” 처럼 아들이, 그간 별일 없었느냐? 와 같은 어적인 인상을 준다. teacher 같은 단어는 He is my English teacher. 하는 식으로 직업이나 역할을 말할 때만 쓴다. 영어를 가르치면서 학생들에게 선생님은 물론 친구 아빠를 Mr. Kim 이라고 부르는 문화의 차이도 설명해 주면 좋다.¹⁶⁾

There are many ways of addressing teachers in other cultures. In many parts of the world, students must show politeness and respect to teachers; one way of doing this is not to use the teacher's first name. Some teachers in the U. S. don't think it is rude if their students call them by their first name. This may be their way of having a close informal relationship with students. In the U. S. one way to show closeness and friendliness is to use a person's first name. In the U, S., it is not appropriate for adults to call their teachers “Teacher”. Only young children call their teachers “Teacher”.¹⁷⁾ Teacher is the form of address only used by children.¹⁸⁾

16) 신 채기(2000), 「초등영어를 위한 아이디어 250」, 홍익 미디어 플러스, p.30.

17) Deena R. Levine *et al.*(1987), *The Culture Puzzle*, New Jersey: Prentice Hall, p.5.

18) *Ibid.*, p.7.

다음에는 학생들이 선생님을 호칭하는 예를 들어 보겠다.

Example 1: 선생님의 성에 결혼한 부인에게 붙이는 호칭과 함께 부르는 표현을 본다.¹⁹⁾

Jane and Sunho plan to visit their teacher in the hospital.

Jane: Our teacher, Mrs .Yi, had a baby yesterday.

Sunho: Oh. really? Was it a boy or a girl?

Jane: It was a girl. I'm sure she's as pretty as her mother.

Sunho: How long is Mrs. Yi going to be in the hospital.

Jane: She'll be there for about three more days.

Sunho: Let's go visit her and take her some flowers.

Jane: Do you know when is visiting hours?

Sunho: From 5:00 to 9:00 p. m

Example 2: 미국인 교사가 자신이 first name으로 불려지기 바란다고 학생에게 소개하고 있다.

Teacher: I'm your new English teacher, Geena Kim.

Student: Ms. Kim, What do you want me to call you?

Teacher: I suppose you could call me Mrs. Kim, but I want you to call my first name, Geena.

Student: O. K. Geena.

Example 3: 선생님을 공경하는 의미로 ma'am 또는 sir. 라고도 할 수 있는데 그 예를 본다.

19) 전 상범외 5인(1993), *English Conversation*, 금성교과서, p.84.

Inho is making an excuse for handing in the paper later than the due date.

Inho: Ma'am, Would it be possible for me to hand in the paper by next Monday?

Teacher: Why? I thought the paper is due today.

Inho: Actually, I have been sick in bed for two days.

Teacher: I see. If it's the case, I'll let you do that.

Inho: Thank you, ma'am. I just can't thank you enough.

Teacher: Don't mention it.

나이나 직급이 위라는 이유로 권위나 위엄을 내세우려는 사람들이 거의 없는 사회이기 때문에 선생님과 학생은 상하 관계가 아니다.

2) 인사하기

처음으로 영어를 배울 때 우리는 통상 인사에 대하여 배우는 것으로 되어 있다. 우리들은 "How are you?" 하고 인사를 받으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만 "I am fine thanks, and you?" 라고 응답하게 된다. 그러나 실제 상황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인사하는 미국인을 본 적이 없다. 그저 I 와 am 을 생략하고 fine이라든가 good 혹은 가끔가다 excellent 라고 응답하게 된다. 구태여 and you? 라고 이어서 말하지 않으며 응답을 들은 상대방은 바로 Good 이라고 응수하며 대화를 끊지 않는다. 그러면 이때서야 "How about you?" 하며 이쪽에서도 안부를 물어 본다. 좋은 대화란 탁구 치는 것처럼 대화를 주고받는(back and forth) 속도가 잘 맞아야 한다.

A good conversation in English is like a ping-pong game. One person has the ball and then hits it to the other side of the table. The other player hits the ball back and the game continues. If one person doesn't

hit the ball back, then the conversation stops.²⁰⁾

교사인 Geena와 학생인 Susan이 인사하는 과정을 보기로 보자.

Geena: How are you Susan?

Susan: Pretty good.

Geena: Good.

Susan: How about yourself?

Geena: I am fine.

Susan: Good.

학생들이 교사에게 Hi!라고 인사하는 모습을 자주 보는데 서로 거리감이 없는 사람끼리 주로 사용하며 학생은 교사에게 Hello! 와 함께 교사의 이름을 불러주는 것이 통상이다. 대화자간의 사회적 직위 및 친분 관계가 어떤 것이며 어떤 상황에서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의해 언어 표현이 다르다. 하루에 몇 번이라도 Hi!라고 하는 미국인들의 의식은 그들의 성격에 기인된 것이라고 본다. 또한 인사하는 때에 맞춰 아침이면 good morning, 오후이면 good afternoon, 밤이면 good evening으로 인사를 하고 상대방의 이름을 안다면 이름도 같이 붙여 인사를 하면 조금 더 자연스러운 그리고 좀 잘하는 영어로 들린다.

좀 더 구체적으로 구어체 영어에서 대화를 시작하기 위하여 인사하고 응답하는 표현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²¹⁾

20) Deena R, Levine *et al.*(1987), *op. cit.*, p.124.

21) *Ibid.*, p.126.

Greetings

“Hi (or Hello). How are you?”

“Hi. How ya doin’?”

“Hi. How’s it goin’?”

“How’ve you been?”

“Hi. How goes it?” (very informal)

“Hi. How are things?”

“Hi. What’s happening?” (very informal)

“Hi. What’s new?”

“Hi. *What’ve* you been up to lately?”

Responses

“Fine and you?”

“O. K. How about you?”

“Pretty good. How about you?”

“Not too bad. How about yourself?”

“Everything’s O. K. How you doin’?”

“O. K. Can’t complain. (very informal)

“Oh. not much. How about with you?”

“Not a whole lot.” (very informal)

“How about with you?”

“Not too much. *How ’bout* you?”

위 표현을 사용한 Sara와 Brent의 인사하는 내용을 보기로 보자.²²⁾

Sara: “Hi. *How’ve* you been?”

Brent: “Pretty good. How about you?”

Sara: “Oh just fine.”

3) 미국식 이름 만들기

미국에서는 아주 공식적인 경우가 아니면 first name을 주로 사용하는데

22) *Ibid.*, p.124.

first name을 더욱 부르기 쉽게 하기 위해 축약형 이름(diminutive name)을 쓰는 경우가 많다. 여기에는 주의를 요한다. 미국 사람들은 아예 처음부터 그들의 이름이 영어로 불려지기 때문에 줄여서 간단히 줄인 것이지 애칭(nick name)이라고 하지는 않는다. 그러나 한국에서 교사들이 한국 이름 대신에 영어로 이름을 부르는 것은 nickname이 아니라 American name(English name)을 하나 만들어 준 것이다.

한국이름이 시작되는 발음의 첫 자를 따서 만드는 것이 무난하며 대인관계가 훨씬 부드러워진다. 예를 들어 대빈은 David, 철수는 Charles, 홍석은 Henry, 수진을 Susan, 준수는 John등 미국이름으로 만들어 주면 미국인들이 훨씬 쉽게 기억하게 된다. 참고로 미국 소년, 소녀들의 일반적인 이름을 제시한다.

<i>male(boy)</i>	<i>female(girl)</i>
Peter, Benjamin, Christopher,	Brenda, Betty, Molly, Carol,
Phillip, Kevin, Thomas, Patrick,	Catherine, Sunny, Helen, Ann,
Robert, William, James, Andy,	Jennifer, Marilyn, Gina, Geena,
Edward, Jonathan, Phillip, Carl,	Sally, Elizabeth, Jina, Mary,
Joseph, Patrick, Charles, John,	Christina, Linda, Elsa, Nicole,
Kenneth, Richard, Jack, Albert,	Ellen, Caroline, Anne, Patricia.
Frank, Tim, Samuel, Harry,	Jacqueline, Rose, Margaret

이름에는 의식적이건 무의식적이건 떠오르는 고정 이미지가 있다. 그것은 그야말로 연상되는 것이기 때문에 정서나 문화를 공유하는 사람들끼리만

공감할 수 있다. 그 예로 영어 이름이 갖고 있는 이미지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²³⁾

먼저 여자 이름으로 Ann: 품위가 있고 정직하지만 예쁘지는 않다. Elizabeth: 유혹적이다. Margaret: 약간 초라하다. Mary: 건전하고 여성적이며 적극적이다. Nicole: 모든 점에서 평범하다. Vicky: 매우 섹시하고 굉장히 호감을 주며 쾌활하다. 남자 이름으로는 John: 아주 소극적이지만 신뢰할 수 있고 남자답다. Michael: 매우 인기가 있다. Benjamin: 정직하지 않다. Anthony: 키가 크고 강인하며 기품이 있다.

또한 종교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종교적 이름을 지어 줌으로 모든 사람들이 들었을 때 그 아이의 종교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미국으로 이민간 많은 한국인들은 종교적인 이름을 많이 미국이름으로 갖게 된다. 미국 이름 중에도 자칫 잘못하여 친구들간에 놀림이 될 수도 있는 이름이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학교에서 친구들이 놀리기 위하여 자꾸만 그 이름을 불러서 교사가 수업 흐름이 방해되게 되기 때문에 발음이 영어에서 의미가 나쁘게 들리는 이름은 피하도록 한다. 한국 이름을 그대로 고수하고 싶을 때에도 그 발음이 영어 발음 중 좋지 않은 단어가 된다면 이를 피하여 준다.

4) 학년 말하기

미국에서는 초등학교부터 고 3학년까지를 숫자로 말한다. 총 12년을 나라에서 무료로 가르쳐 주는 이 교육은 미국인의 교육 수준을 물어 보는 질문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를 졸업하였냐는 직접적인 질문(Did you graduate high school?)보다는 몇 년간 교육을 받았느냐는 질문을 한다. 대답하는 숫자에 따라 고등학교 교육을 졸업했는지 알아 볼 수 있다.

23) 김 자경(1998), 「공격적인 포크문화, 수동적인 젓가락 문화」, 자작나무, p.301.

왜냐하면 미국의 학년은 1학년, 2학년 등으로 시작하여 12학년으로 끝나게 된다. 이어서 더하게 되는 대학의 학년은 우리가 알고 있는 데로 freshman, sophomore, junior, senior 라고 한다. 간혹 고등학교가 4년제로 되어 있는 곳에서도 대학교에서 사용되는 학년표시와 같다. 이와 반대로 대학이 5년제 인 대학도 있는데 이때에는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으로 말해도 된다. 학급을 말할 때는 선생님의 이름을 따서 누구누구의 반이라고 한다.

Teacher: What grade are you in?

John : Third grade. Mrs. Johnson's class.

Professor: Are you in this school?

Henry : Yes, I am in junior.



2. 일상의 표현

1) 이해여부 점검

미국인들은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을 잘 이해하고 있는가를 한 과정 한 단계마다 점검하는 습관이 있다. 그래서 예기 도중 “Do you understand?”, “Are you following what I am saying?”, “Do you know what I mean?”, “Okay?” 라고 자주 점검한다.

특히 교사와 학생간에는 비언어적 의사소통 보다는 언어적 의사소통이 더 중요하다고 보기 때문에 교사가 가르칠 때 위와 같은 식으로 한 과정, 한 과정 지날 때마다 과연 잘 이해하고 있는지 말로써 자꾸 확인하고자 한다. 한국에는 눈치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것은 그냥 얼굴 표정으로 알아듣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비언어적인 것이지 확실한 것은 아니다. 이러한 점은 다음

클에 잘 드러나 있다.

This is what makes such a wide gap between the American style of partial communication and the Korean style of total communication.²⁴⁾

2) 주소 표기

영문 편지를 쓸 때 한국인 학습자들이 생소하게 느끼는 것이 주소 표기라 할 수 있다. 도의 명칭을 먼저 쓰고 그 다음에 시, 군, 그리고 면, 등의 순서로 적는 우리 나라의 주소 표기법과는 달리 미국 사람들은 주소의 형식을 우리와 역순으로 번지수, 거리, 시, 주, 등의 순서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다음 인용문에 어느 정도 나타나 있다.

The way Koreans and Americans write their names and addresses reflects some basic differences in their value and behavior judgements concerning themselves. Koreans tend to regard family or community or nation as the core center whereas Americans value themselves as the center. The way Americans attach priority to those things closest to themselves reflects how they value themselves relative to others. Americans tend to be self-assertive in doing everything. By placing their given names first they want to identify themselves as unique individuals on the earth different not only from other people but also from close relatives including immediate families. When they write their mailing addresses, proceeding from a larger unit to a small unit, e. g. their country (or province), the name of the town, the local street name

24) 박 명석(1979),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서울: 한신 문화사, p.93.

and number, and then their last name in order. Americans place their names or addresses completely the other way around.²⁵⁾

다음은 주소표기의 예이다.

Angela shows her address in America. In return, Younghee Choi gives her address to her.

Angela Smith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성동구
1532 West 6th street	하왕십리동 977-1
Austin, Texas 78703	최 영희
U. S. A	133-020

한국식 주소 표기법: 제주시 화북1동 11-1 화북주공 Apt. 111동 705호

김 용진

미국식 주소 표기법: Yongjin Kim
6199 Canterbury Dr. #307
Culver city, CA 90230

3) 생년월일 말하기

미국인은 자기의 나이를 말할 때는 몇 달만 있으면 몇 살이 된다던가 현재 몇 살 몇 개월이라든지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나 한국인은 나이를 한 살 더 올려서 많은 나이로 말한다. 그래서 American age or Korean age? 라고 다시 되묻게 된다. 생년월일을 서류에 적어야 할 때는 달, 날짜, 연도 순으로 기록해야 한다. 한국인이 미국 땅에 입국할 때 적어 내야 하는 I-94

25) *Ibid.*, p.79.

Form에 연도, 달, 날짜 순으로 적으므로 이민 심사관이 다시 한번 더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발생한다. 달은 12달로 되어 있고 날짜는 31일까지 있는데 통상 아라비아 숫자로 적을 때 10이하의 숫자는 01, 02, 03, 04, 05, 06, 07, 08, 09로 표시하는 것이 보통이다. 달을 줄인 단어 즉, Jan., Feb., Mar., Apr., May., June., July., Aug., Sep., Oct., Nov., Dec.,로 적어 주면 더욱 확실한 방법이다. 다음은 나이와 생년월일을 묻고 말하는 예가 되겠다.

How old are you?

I will be 13 next month.

When is your birthday?

April 12, 1989

4) 요금계산하기



미국에서는 요금을 어떻게 계산하느냐에 따라 cash, charge로 구분된다. 자기앞수표(personal check)는 결제 방법이 현재 은행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지는 않지만 바로 이튿날이면 결제될 것이므로 cash로 구분되고 credit card는 빚을 졌다 라고 하여 charge로 구분된다. 다음은 그와 관련된 대화의 예이다.

Hotel Cashier: Are you ready to check out?

Guest or Customer: Yes.

Hotel Cashier: Will it be cash or charge? (How will you pay?)

Guest or Customer: Charge.

5) 결혼여부 말하기

한국인들의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은 한번 결혼은 영원한 결혼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미국인들의 결혼에 대한 사고방식은 두 번, 세 번, 얼마든지 가능한 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그리고 사실대로 알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들은 당신은 결혼했습니까? 라고 묻고 싶을 때 “Are you married?”라고 묻지 한국말을 그대로 번역하듯 “Did you marry?”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현재 결혼한 상태를 알고 싶은 것이지 과거를 묻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아니면 아이들은 있습니까? 라고 돌려서 물어 본다. 현재 결혼 상태를 표현하는 I am married. 이혼 상태를 표현하는 I am divorced. 별거 중인 상태를 표현하는 I am separated. or I am legally separated. 라고 대답해 주는 것이 확실한 방법이 된다. 참고로 미국에서 부부의 결혼 상태를 표현하는 marriage, separation, divorce에 관해 더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²⁶⁾



Marriage: Usually the decision to marry is based on a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man and woman. Parent's may or may not be asked to give their permission. The marriage ceremony may be a simple visit to city hall, where marriage vows are exchanged and papers are signed, or it can be elaborate religious festive celebration. There are numerous alternative to the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Separation: Couples who do not wish to get divorced may decide by

26) Deena R. Levine & Mara M. Adelman(1982), *Beyond Language*, New Jersey: Prentice Hall, p.107.

mutual agreement to separate; in this case, they are still legally married. Couples who have filed for divorce are separated until the divorce is finalized.

Divorce: Divorces can be obtained easily in most American states. Either husband or wives can apply for divorce. Basis for divorce may as be diverse as mutual agreement of "incompatibility" to accusations of brutal treatment. There is a minimal waiting time for marriage. Child support payments, alimony, and the division of property are usually arranged by the courts or by mutual agreement between the husband and wife.

6) 소유관련 표현

우리의 전체에 흐르는 가족 집단적 의식, 연대 의식은 때로는 배타적 표현으로 또는 일반화시키는 표현으로 발전하는 수가 있다.

박 명석(1979:79)은 “한국인들은 자기만의 부인을 말할 때 우리집 사람이 라고 말한다”고 하고 있다. 이럴 때 외국인들은 의아하게 생각하며 “With how many husbands is the wife living now?”라고 물을 것이다. 나라, 집, 가족을 표현 할 때도 our country instead of my country, our house instead of my house, and our family instead of my family 라고 한다.

어떤 한국의 정치가는 I am working hard for our community, or our president. 라고 연설하지만 우리 나라의 대통령이 현재 몇 명이나 된다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I am working hard for my community. I am working hard for my president. 라고 말하는 것이 맞는다.

똑같은 상황에서 한 미국 병사는 “I am fighting for my home, or my

dear love or my father and my mother or my brother and sister or my dog and cat or my garden or my schools and churches which I attend.”라고 말하고 한국 병사는 “I am fighting for our fatherland or his excellency.”²⁷⁾라고 말하는 것을 보아 한국인들은 우리라는 집단 속에 같이 있기를 좋아하고 미국인들은 자기만의 소유를 원하는 문화적인 배경의 차이를 알 수 있다.

7) 손님에게 도움주기

직업에 따라 “May I help you?”와 “Can I help you?”로 도울 수 있다는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데 남에게 봉사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로부터 돈을 가져가는 직업(상점, 식당, 여행사, 보험회사 etc.)은 “May I help you?”로 물을 수 있다. 그러나 선생님과 학생, 같은 수준의 친구(peer), 가족끼리 등 돈을 거래하지 않는 관계에서는 “Can I help you?”로 묻는다. 길거리에서 우리가 외국인에게 “May I help you?”하며 친절을 베풀려고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이럴 때의 표현은 “Can I help you?”가 더 외국인에게 자연스럽게 들리는 표현이 된다. May는 permission(허락), can은 possibility(가능성)를 표현할 때 사용되기 때문이다. “May I help you?”보다 더 공손한 표현으로 “How may I help you?”가 있다. 예로 아래 대화를 보자.

Student: Are you the teacher of this class?

American teacher: Yes, Can I help you?

27) 박 명석(1979), 전개서, p.79.

3. 영어 표현상의 오류

한국인 학습자들은 간혹 단어를 잘못 알고 있거나 발음이 틀려서 미국인들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한가지 이유는 외래어를 수용할 때 문화적인 측면을 소홀히 다루었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는 통용되고 인정될지라도 영어 사용권 사람들에게는 우습게 들리거나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어휘들이 있다.

이렇게 차이를 가져온 이유는 먼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온 영어들이 일단 일본식 언어 체계에 맞게 한번 걸러졌다가 그대로 들어온 경우, 다른 이유로는 영어로 착각하고 쓰고 있는 영어 아닌 외래어인 경우나, 우리에게 소개된 상품명이나 그대로 보통명사로 정착된 경우가 있다.

preme는 커피에 타게되는 cream인데 이는 우리에게 알려진 cream이라는 상표(brand)명에 불과한 것이고 eye shopping은 한국인의 쇼핑문화가 물건을 사지 않고 상점 밖에서 안을 얼마든지 들여다 볼 수 있는 미국인의 쇼핑문화(window shopping)와 달리 물건을 사지 않고 눈으로 구경만 한다는 의미에서 비롯된 것이다.

이와 같이 단어가 잘못 되어져 있거나 그 단어가 사용되어지는 기능의 차이로 인해 한·미국인간의 의사소통시 오해가 일어나게 된다.

우선 영어 표현이 잘못 전해온 것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Konglish

autobi
old miss
ball-pen
apart
televi
crakson
hotchikiss
arbeit
talent
stand
eyeshopping
sign
preme
burberrycoat

English

motorcycle
oldmaid or spinster
ball-point pen
apartment
television
horn
stapler
part-time job
star
desklamp
windowshopping
signature
cream
trenchcoat



생활에 관련된 표현으로 교통위반시 경찰에 걸렸을 때 사용되고 있는 sticker는 ticket, 호텔의 수속하는 곳은 front가 아니라 front desk, 야채를 실내에서 재배하는 곳은 vinyl house가 아닌 greenhouse, 물건을 담아주는 vinyl bag은 plastic bag, kleenex는 tissue paper, panty stocking은 panty hose, aircon은 air conditioner, remocon은 remote control, consent는 plug 또는 outlet, golden time은 prime time, combi는 sports jacket, sun glass는 sun glasses, hand phone은 mobile phone 또는 cellular, D. P. shop이 아니라 photo shop이 맞는 영어 표현이며 음식에 관련하여서는 pine juice가 pineapple juice, 아이스케키가 popsicle 돈까스가 pork cutlet, curry rice가 curried rice, milk coffee는 coffee and milk가 맞는 표현이며 사람에 관

련된 표현중 lady first는 ladies first, mama boy는 mama's boy, old miss는 older unmarried woman, T. V talent는 T. V star라고 하는 것이 맞다.

자동차에 관련된 표현중 side brake는 parking brake, rent-car는 rent-a-car, car center는 garage, bonnet는 hood, handle은 steering wheel, back mirror는 rear-view mirror가 되겠고 기능이 달라서 그 표현이 다른 경우를 보면 학교에서 컨닝 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는데 이는 미국에서는 cheating 이라고 한다. 컨닝(cunning)은 교활한, 사악한 의 뜻으로 위법을 했을 때 사용되는 단어이기 때문에 회화체에서는 거의 사용할 기회가 없다. cheating은 살짝 속이는 의미이기 때문에 시험 볼 때 감독관을 속이거나 자기의 배우자 몰래 다른 사람을 사귄 때 이 단어를 쓴다. 그 예는 다음과 같다.

Don't cheat on your wife.

Don't cheat when you're taking a test.

약이라는 뜻의 drug은 요즘에는 마약이라는 의미로 통용되므로 일반적인 의미의 약은 medicine이라고 하여야 한다. 마약 판매상을 drug dealer, 마약 남용을 drug abuse, drug addict라고 표현한다.

우리는 여자 영화배우를 actress, 남자 영화배우를 actor라고 구분하는데 미국에서는 hollywood star 혹은 movie star로 구분 없이 표현한다.

운동선수를 sportsman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모든 운동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가리켜 sports man이라 하고 운동 선수는 professional athlete. sports player라고 부른다.

또한 한국인 학습자들이 혼동하여 사용하는 표현 중에 "I see."와 "I know."가 있는데 "I know"란 전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일들을 들었을때

“I see”는 몰랐던 사실을 새롭게 들었을 때 하는 표현이다.

I’m sorry to hear that.과 I’m happy to hear that.의 경우는 상대방의 말에 바로 반응을 보이는 표현인데 미국인들은 어떤 슬픈 소식이나 상처를 받아 마음이 아프다는 말을 들으면 I’m sorry 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미안하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이 참 안됐고 나도 동정을 느낀다는 의미이고 I’m happy to hear that은 들은 사람이 행복하다는 것이 아니고 참 좋겠구나의 의미이니 알아두는 것이 좋다.



IV. 학교에서의 수준별 문화 교육 방안

외국어 수업시 문화교육을 실시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가르칠 문화 내용체계를 신중하게 구성하여 전체 교안과 연계성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모든 교실내 수업이 그렇듯이 계획 없이 문화지도가 이루어질 경우 그 지도내용과는 관계없는 의도하지 않았던 내용을 전할 수 있다. 그러므로 문화지도를 계획하는데 있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일은 문화지도의 목표를 정하는 일이다. 학습자에게 가르칠 때 성취시키고자하는 문화 교육의 목표중 그 수업시간에 원하는 것을 선택하여 교과과정에 포함시킬 수 있다.

Seelye(1985)는 문화교육의 목표를 학습자의 입장에서 다음과 같이 일곱 가지로 세분화한다.²⁸⁾

1. 학습자들이 어떤 문화적인 조건하에서 이루어진 행위의 의미 또는 기능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2. 학습자들이 언어와 사회적인 변수들이 이루어 내는 상호작용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학습자들은 일반적인 상황하에서 행하는 관습적인 행동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이다.
4. 학습자들이 낱말과 구절들이 문화적으로 어떤 함축적 의미를 가지는지를 알도록 하는 것이다.
5. 학습자들이 어떤 사회에 관한 진술들이 목표문화와 어느 만큼의 보편적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가를 그 진술을 실증하는 증거들의 양을 토대로해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28) Seelye Ned(1985), *Teaching Culture: Strategies for Intercultural Communication*,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p.85.

6. 도서자료, 대중 전달 매체, 개인적인 관찰 등을 토대로 목표문화에 관한 정보를 분류하고 정리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7. 목표문화에 대한 지적인 호기심과 그 문화권에 속한 사람들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Seelye가 제시한 일곱 가지 문화교육 목표를 보다 큰 범주로 묶어보면 먼저 1-4번까지의 목표는 목표어의 문화권 사람들과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할 수 있고 다섯에서 일곱 번째까지는 학습자들이 목표언어의 문화에 대해 가질 수 있는 문화적 고정관념이나 편견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것이라 볼 수 있다. 특히 마지막 일곱 번째 목표는 외국어 교육의 성공적인 실행여부와 관련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학습자들의 문화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태도는 목표어 습득에 유리하게 작용하고 부정적 태도는 목표어 습득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목표문화에 대한 학습자의 태도는 목표언어 습득과 연결되기 때문에 교사는 학습자들이 목표문화에 대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과 편견을 뛰어 넘어 세상사람들이 모두 자신과 같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고 목표문화를 자국의 문화와 우열로 나누어 평가함이 없이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문화교육의 목표는 또 Lafayette(1978)에 의하면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다.²⁹⁾

1. To recognize major geographical features of the target country.
2. To recognize major historical events pertaining to the target country.
3. To recognize major aesthetic monuments of the target culture including architecture, literature, and the arts.

29) Robert C. Lafayette(1978), *Language in Education: Teaching Culture*, Arlington Virginia: A. A Hill library, p.2.

4. To recognize active everyday cultural patterns (e. g, eating, shopping, greeting people).
5. To recognize passive everyday cultural patterns (e. g, marriage, customs, education, politics)
6. To act appropriately in everyday situations.
7. To use appropriate common gestures.
8. To evaluate the validity of generalizations about foreign cultures.
9. To develop skills needed to research (i. e., locate and organize information about) culture.
10. To value different people and societies.
11. To recognize the culture of foreign language related ethnic groups in the United States.
12. To recognize the culture of additional countries that speak the foreign language.

Students need active cultural knowledge to function in the foreign environment; passive cultural knowledge, on the other hand, improves their understanding of their surroundings but is not necessary for operating in that culture. A course specially designed to teach reading might wish to emphasize goals (1), (2), (3), and (5), while one designed to prepare individuals for foreign travel might attach greater importance to goals (4), (6), (7).

위의 12가지 문화를 배우는 목표를 다시 5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가 있는

데 1에서 3까지는 지리나 역사 문학에 대한 이해, 4에서 7까지는 일상적인 문화적 형태, 8번과 9번은 교사들이나 수준 높은 반에서의 외국 문화의 학습, 다른 11개의 문화에 대한 이해보다도 가장 효과적인 목표가 될 수 있는 10번, 마지막으로 12번은 미국 내에 있는 다른 인종들의 언어와 관련된 요인들에 대한 이해 등으로 되어 있다.

말을 하지 않고 자신의 뜻이나 감정을 표현하는 비언어적 의사 소통인 제스처는 감추어진 영역이라 할만큼 문화상의 큰 정보를 담고 있다는 점은 새삼 강조하지 않아도 좋으리라 본다.

문화를 가르치고자 할 때 여러 가지 많은 접근 방법이 있는데 필자는 교사가 학습자의 언어습득 과정, 장소, 어느 정도의 듣기능력, 독해능력의 진전에 따라 초급, 중급, 고급수준의 문화지도를 할 수 있다고 본다. 또 다시 말해 언어기능 성취수준에 의거 듣기만 가능한 경우에는 초급수준으로, 듣고 말하기가 가능한 경우와 부모를 따라 또는 혼자 미국을 경험한 학생들을 중급수준으로, 읽기와 독해가 가능한 경우는 고급수준의 지도방안으로 나누어 제시할 수 있다.

1. 수준별 문화 지도 방법

김 숙이(2000:60)도 언급하고 있듯이 문화지도는 초급편, 중급편, 그리고 고급편으로 나누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³⁰⁾

1) 초급편

(1) 문화방백(cultural asides)

30) 김 숙이(2000), “초등학교 교과서의 문화소개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60에서 재인용.

자국어와 connotation이 다른 단어나 구를 설명

(2) 문화요소 조사(foreign elements survey)

이름의 위치, 음식, 영화등 제 2 문화요소를 찾아보는 활동

(3) 실물교환(realia exchange)

각 문화에서 전형적인 물건을 넣은 상자를 교환해서 대화를 고무

(4) 문화만화(cultural cartoons)

식사 tipping, 학교생활등 다양한 문화관습을 만화로 그림

(5)문화달력(classroom calendar)

제 2 문화에서 중요한 공휴일, 사건, 인물 등을 기록한 달력부착

(6) 문화연대표(bicultural timeline)

두 색깔을 사용하여 두 나라의 중요한 사건을 표시

(7) 문화경기(cultural games)

정보적 내용을 가장 다루기 쉬운 방법으로 유명한 사람, 사건, 장소, 기념
물, 이름을 말하거나 인식하여 보는 방법

(8) audio-motor units

식당방문, 장보기등 제 2 문화권에서 생활하는 사람처럼 행동하게 하여 지
도하는 방법

(9) 문화견본이나 생활단편(cultural samples or slice of life)

외국의 신문, 광고, 방송테이프, 인기가요 등을 준비하여 문화적 차이점 설
명

(10) 문화동화자(cultural assimilators)

문제시되고 물의를 야기시키는 어떤 문화적 상황을 제시한 후 네 가지를
설명한 것 중에서 하나를 골라 다시 feedback을 받는 것

2) 중급편

(1) 문화캡슐(culture capsules)

양 문화간의 현상과 차이점을 비교 토론하는 방법

(2) 문화군(culture clusters)

3-4가지의 관련이 있는 문화캡슐로 구성되며 반시간 짜리 미니드라마나 모방이 수반된다

(3) 문화연극(cultural minidrama)

의사소통상 잘못 이해되는 3-4개의 이야기로 구성, 끝 부분에 가서 오해가 되는 부분을 바로 잡아 주도록 한다.

(4) 상황(situations)

어떤 상황에 학생들이 직접 행동하는 방법

(5) 역할분담하기(role-playing)

사업가, 노동가, 군 장교 등의 역할을 실제로 생활에 옮기는 방법

(6) 토의와 토론(discussions and debates)

대학생활, 습관, 경제적 상태, 인간관계 등의 화제를 토론

(7) 유머(humor)

사람들을 웃도록 해주는 문화내용을 골라 이야기 해준다.

(8) 격언(proverbs)

격언에는 사고방식이나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9) 노래(songs)

(10) 민요만화(folklore)

3) 고급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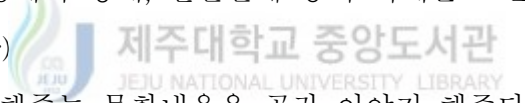
(1) 영화(films)

(2) 문화간행물(cultural readings)

잡지, 신문, 광고등

(3) 문학(literature)

(4) 문학에 대한 작문(culture-oriented writing)



- (5) 문화과제(cultural projects)
- (6) 문화이수과정(culture minicourses)
- (7) 원어민과의 접촉(contact with natives)
- (8) 문화사회 자료(cultural community resources)
- (9) 언어클럽 활동(language club activities)
- (10) 해외여행(a trip to the second culture area)

이어서 위의 문화지도의 방법중 중요한 몇 가지를 예문을 들어가며 알아본다.

1) 초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1) Audio- Motor Unit

이것은 Asher(1977)의 전신 반응 교수기법(Total Physical Response: TPR)에서 말하는 “command and response”의 경우와 흡사하다. 듣기 능력을 가르치려고 하는 점에 중점이 주어진다. 교사가 여러 개의 명령의 말을 하면 학습자가 행동으로 반응하는 것이다. 그러나 TPR의 방법과 큰 차이는 교사가 구두로 명령을 하면 학생이 즉각 행동하는 것이 아니고 교사가 구두로 명령을 한 다음 교사 스스로가 몸짓, 무언극(pantomime), 얼굴표정 등을 지으면서 명령의 내용을 학습자에게 보여준다. 학생은 교사의 구두지시(oral command)를 들은 다음 그에 따른 교사의 반복적인 행동을 관찰하고 스스로 행동에 옮긴다. 그 예를 보면 다음과 같다

Audio motor unit의 예³¹⁾

You are at a restaurant.

준비물: 스테이크, 빵, 식탁, 의자, 나이프, 포크, 냅킨등

31) Robert C. Lafayette(1978), *op. cit.*, p.6.

Pick up your napkin.
Unfold it.
Put it on your lap.
Pick up your fork in your left hand.
Pick up your fork in your right hand.
Cut a piece of meat.
Put it in your mouth.
Chew it.
Swallow it.
Put down your knife and fork.
Leave your hands on the table.
Pour a glass of wine.
Take a sip.
You want some bread, tear off the bread.
Eat it.
Pick up the bill.
Look at it.
Take your wallet.
Pay the bill.
Leave a tip.
Leave the restaurant.

위 문장들을 교사가 구두 지시를 통해 실제로 행동으로 보여준다. 그리고 교사가 구두 지시를 하면 학생들이 행동으로 실행하도록 하고 다음에는 스스로 구두 지시를 하며 실행해 보도록 한다. 그리고 이 내용을 이해했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질문들을 던져본다.

Question

- 1.What do most Americans seem to do before meal?
- 2.How do most Americans eat meat?
- 3.How do most Americans eat bread?
- 4.Where do most Americans put their hands when not in use?
- 5.What do most Americans drink at the meal time?
- 6.What do most Americans have for dinner?

이어서 함께 답을 확인해 본 후 미국과 우리 나라의 식사 습관의 차이를 비교해 본다. 그리고 tipping과 going dutch 에 대해서도 설명해 준다.

(2) Culture Asides

이 방법은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으로 사전에 계획을 세워 지도하는 것이 아니고 가르치고자 하는 구절 속에 문화를 대한 내용이 나오면 어떠한 것이라고 간단히 설명하는 것이다. 필요성이 있을 때만 하는 것이므로 수업전반에 걸쳐 사용될 수 있으며 교재의 내용이나 어휘가 문화에 관련될 때마다 설명될 수 있기 때문에 대개의 이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 수업은 수업전반에 걸쳐 부수적으로 행해지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단점이 있다.

그 예로 교수-학습과정에 생일날 선물을 주는 장면이 나오면 다음과 같이 간단히 설명해준다. 우리 나라 사람들은 선물을 주면서 예의의 표시로 “It’s nothing.”이나 ”This isn’t very nice.”등의 말을 하지만 미국인들에게 선물을 줄 경우에는 그 대신 “Here’s a present for you. I hope you like it.”등의 말을 사용하는 것이 더 적절하다. 그리고 미국인들은 선물을 받자마자

바로 풀어보는 것을 좋아하며 선물을 주는 사람은 받는 사람의 미소를 보고 싶어하고 받는 사람은 준 사람에게 바로 고마움을 표현하고 싶어하므로 단지 고마움만 표시한 채 선물을 내려놓는 것은 예의바른 행동이 아니라는 것도 덧붙인다.

(3) Culture Assimilator

이 문화 동화 지도법(culture assimilator)은 문화간의 이해(cross cultural understanding)를 돕기 위하여 고안된 것으로 처음에는 사회 심리학자들이 외국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개발한 방법이다. 오해나 혼동 또는 외국 문화에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부여된 이야기를 학습자로 하여금 묵독시킨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4개의 답을 주어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함으로써 오해, 적대감을 일으키기 쉬운 양 문화의 차이점을 이해시키는 방법이다.

문화동화자 수업의 장점은 학습자들에게 자신들과는 아주 다른 사람들의 생활양식, 사고방식 등을 심도 있게 생각해 보고 이미 가지고 있던 자신의 편견들을 깨고 포용력과 비판적인 사고를 가지게 할 수 있다. 듣고 문제를 풀게 한 다음 여러 경우를 토의하여 어느 것이 가장 옳은 답인지를 찾도록 유도한다. 이렇게 하여 자기 문화와의 비교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방법은 통찰력뿐 아니라 독해력을 개발하는데 도움을 주는 장점이 있으나 문화에 대한 고도의 정확한 숙지가 필요하고 준비하는데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는 불편이 있다. Lafayette(1967)도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그 예문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³²⁾

32) *Ibid.*, p.6.

Culture assimilators consist of a short description of a situation requiring participants to make a choice among potentially reasonable methods of resolving a situation: the participants then match their choices against the behavior deemed most appropriate by the natives of the culture, and discuss the cues they used in making correct or incorrect choices.

Topic: Taking the bus

교사가 읽고 학습자 듣기

After breakfast, Mary leaves the apartment and crosses the street to wait at the bus stop that Mrs. Dupont showed her the previous evening. The bus arrives and Mary gets on. She takes out the ticket that Mrs. Dupont gave her, inserts it in the machine next to the driver in order to validate it and goes to her seat. After the bus has made about ten stops, a ticket controller gets on the bus and asks to see the passengers' tickets. When he gets to Mary, she shows her ticket; after examining it for a minute and asking at what stop she got on the bus, the controller starts writing out a summons saying that Mary will have to pay a fine. Mary protests, saying that she has her ticket, but the controller gives her the summons anyway.

교사의 질문

Why did the ticket controller make Mary pay a fine?

1. Mary's ticket was for the subway.
2. Mary did not paid enough for her trip.

3. Mary had used a second class ticket and was riding a first class bus.
4. Mary's ticket had not punched by the bus driver.

토의 및 설명

Feedback:

1. This is very unlikely, since for the bus and for the subway are the same.
2. This is a correct reason.
3. This is impossible since there is no first or second- class buses.
4. This answer is incorrect.

2) 중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1) Culture Capsule

캡슐이라 함은 문화자료(강의 노트, 그림 사진)가 분류되어 상자 안에 들어있는 상태를 가리킨다. 이 방법은 한·미 두 나라의 문화 중에서 현저한 차이를 나타내는 내용을 정리하고 간단하게 기술한 다음 차이를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행동으로 제시하는 방법이다. Celce-Murcia(1985)는 culture capsule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³³⁾

Culture capsules are short descriptions of a minimal difference between two different cultures, with illustrations or real objects used to demonstrate the difference.

33) Marianne Celce-Murcia(1985), *Culture as an Issu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p.59.

목적은 관습화된 상대문화를 인식하고 외국문화와 자국문화의 비교를 통해 차이를 알뿐만 아니라 우리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학습자들에게 주기 위함이다. 특히 일상생활에 관련된 부분(post office)을 주제로 하도록 한다. 아울러 간단한 질문을 던진 뒤에 학습자들간에 토론을 하도록 하며 나중에 학생들로 하여금 문화 내용을 전달하기 위한 간단한 연극을 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방법이 문화 동화 지도법과 다른 점은 대체로 두 가지이다. 첫째, 이 지도법은 학생들에게 묵독을 하지 않고 구두로 말하도록 하는 점이 다르다. 둘째, 이 지도법은 오해하기 쉬운 문화적 차이를 강조하는 것이 아니라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비교함으로써 학습자는 외국 문화가 어떻게 다른가를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예시를 통해서 자국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게 되는 기회를 갖는다.



(2) Role Playing

외국어 학습은 목표문화 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가상적 상황을 만들어 대역을 하는 역할극이 유용하다고 하겠다. Brown(1980: p.134)은 제2언어 교실에서 역할극의 활용을 적극 검토하였다. 이 방법은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문화를 흉내냄으로써 미국 문화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한 것이다. 특히 미국 문화를 행동으로 보여줄 수 있는 학생들이 서로 모여서 소개하기 쉬운 내용을 중심으로 연습을 해 본다면 큰 효과가 있다.

역할극의 장점은 이문화적인 대화과정을 촉진시키며 동시에 의사소통기회를 만들어 준다는 것이다. 이같은 방법이 현장에서 이용 가능한 이유는 최근 여러 가지 이유로 영어를 사용하는 나라에 나가 부모와 더불어 혹은 혼

자라도 잠시 생활하다 온 학생이 많아졌으므로 그들을 통해 모의 게임을 시켜 볼 수 있다.

다음은 역할극 수업의 간단한 예이다.

Shopping in the "classroom" department store, where students serve as clerks and clients.

Example 1: You are a 16-year-old girl who has given money to purchase a complete outfit. However, the clothes must be appropriate to attend Sunday mass in a small provincial village. Go to your teacher, who is playing the role of the owner of a boutique, and make your purchases.

Example 2: You wish to purchase a book, a record, stationery, and stamps for yourself. Your mother has asked you to pick up some bread and cold ham slices on your way home. There are several store signs on your teacher's desk. When you approach the desk, pick out the appropriate sign and purchase the necessary items. Repeat these procedure until you have acquired everything mentioned above.

(3) Culture Cluster

Culture cluster(문화군 지도법)는 문화와 관련된 주제가 들어 있는 3개의 캡슐 속의 내용을 30분 정도 교실에서 교사가 직접 흉내 내보고 교사가 질문을 던져 그 내용을 확인한 후 15분 정도 토론을 함으로서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이다. 교사와 학생들이 활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화를 이해하도록 하

는 과정으로서 상황에 따라 항상 필요한 시각 자료를 제시하여 생생한 미국 문화를 접하고 토론하는 기회를 최대한으로 만드는 지도법이라 할 수 있다.

(4) Cultural Minidrama

이 방법은 학습자가 잘못 의사 소통한 원인을 발견하기 위하여 교사가 이끄는 토론에 의해 이루어지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3막에서 5막 정도의 연극을 학생들이 직접 실제 상황처럼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극본을 읽어가면서 교사와 학생이 역할을 담당하여 서로 교대할 수도 있고 학생들간에 서로 교대하며 실행해 볼 수도 있다. 다음은 두 젊은 미국학생이 휴가를 맞아 벼룩시장에서 과일장수와 얘기하는 상황을 극화한 것이고 또 의사 소통상 문제가 있었던 점을 토론하는 예이다.³⁴⁾

Mini drama의 예



등장인물: 해설가, Cindy, Debbie, 야채장사

Narrator: Two young American students, Cindy and Debbie, are in Cannos for their vacation. They passes an open air market where farmers are selling their fruits and vegetables.

Cindy: It's so hot. I'm thirsty. Look at that table of fruit over there..... the one where the fat woman is sitting.

Debbie: She has some beautiful peaches. Let's go over and take a look at them.

34) Robert C. Lafayette(1978), *Language in Education: Teaching Culture*, A. A Hill library, p.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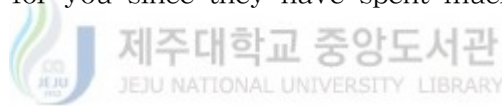
Cindy: You're right, those are nice peaches. (She starts to pick out the peaches she wants to buy.) Let's take this one and the one over there.

Vendor: (sarcastically) Excuse me ma'am. You are planning to buy the whole tableful?

Debbie: (whispers to Cindy) Is she overrude? I wonder what her problem is. Probably had a fight with her husband this morning.

Feedback:

Teachers led class discussion helping students discover that in a open air market one does not touch the fruit in a display. The vendors select the fruit for you since they have spent much time arranging it.



(5) Proverbs

속담은 한 민족, 한 국가의 문화적 특징과 한 민족 조상 전체의 사상, 감정, 염원 등이 과거와 현재에 걸쳐 축조, 응결되어 있는 민족언어로서 어느 누구나 일상 생활 속에서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널리 애용하고 있는 의사소통의 중요한 수단이며 한 문화의 역사, 종교, 미신, 풍속, 제도, 사고방식 등을 이해하는데 좋은 재료가 된다. 그러므로 속담을 통한 문화적 배경의 이해야말로 영어를 효율적으로 학습함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본다.

속담의 장점은 사람들의 사고와 생활방식이 그대로 응축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문화를 이해하는데 좋고 어휘가 어렵지 않다. 따라서 미국인들의 정신과 재치가 담긴 속담을 통해 미국 문화를 지도하는 것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 방법이다. “1일 격언” 같은 난을 만들어 학습 시간외에 학습자들이 저

절로 학습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시간을 중요시하는 벤자민 프랭클린의 “Time is money.”, 말보다도 증거를 중요시하는 “The proof of the pudding is in the eating.”,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건강에 좋다는 “Early to bed, early to rise makes a man healthy, wealthy, and wise.” 등 속담은 그 나라 민중들의 지혜에서 나와 오랫동안 내려오는 말이라 할 수 있다.

다음의 속담들은 어느 나라에서 왔으며 그 속담이 내포하는 교훈은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속담들인지 아래에서 알아본다.³⁵⁾

The Common proverbs in English

<i>proverb</i>	<i>value</i>	<i>origin</i>
Blood is thicker than Family water.	Family	Scotland
Too many cooks spoil the broth.	Royalty	England

35) Virginia Vogel Zanger(1983), *Face to Face*, Heinle Publishers, p.60.

The squeaky wheel gets the oil.	Assertiveness	Unknown
God helps those who help themselves.	Self-help	Greece
Haste makes waste.	Patience	England
What goes around comes around.	Morality	African-American
Time is money.	Efficiency	U. S.
Don't count your chickens before they hatch.	Caution	Greece
Eye for an eye, tooth for a tooth.	Justice	Bible
Never put off till tomorrow what you can do today.	Efficiency	U. S.



한국인에게도 익숙한 격언을 게시판에 붙여놓고 외워서 익히게 할 수 있는 것을 알아본다.

Boys, be ambitious. (소년이여 야망을 가져라.)

Rome was not built in a day. (로마는 하루아침에 세워지지 않았다.)

Seeing is believing. (본 것이 믿는 것)

The early birds catches the worm.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Time flies like an arrow. (시간은 화살과 같다.)

Practice makes perfect. (연습만이 완벽할 수 있다.)

Strike while the iron hot. (쇠가 달구어 졌을 때 쳐라.)

Every dog has his day. (쥐구멍에도 별들 날 있다.)

A friend in need is a friend indeed.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다.)

East, west, home's best. (어디를 가나 집이 제일이다.)

Words cut more than swords. (세 치 혀가 다섯 자 몸을 망친다.)

Great boast, small roast.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More wishes are silly fishes. (감나무 밑에서 입만 벌리고 있지 마라.)

Nurture is above nature. (교육이 타고난 재능보다 중요하다.)

New lords, new laws. (주인이 바뀌면 법도 바뀐다.)

Parents are patterns. (부모는 자식에게 본모기를 보여야 한다.)

(6) Songs and Dances

이 방법은 교사가 직접 미국인이 부르는 노래를 춤과 더불어 소개함으로써 궁극적으로 노래와 춤 속에 담긴 문화의 내용을 알도록 하는 것이다. 노래는 단지 흥미를 위해서만 불려지는 것이 아니라 노래 속에는 미국인의 정신과 문화가 담겨져 있다는 생각으로 지도해야 바람직하다고 본다. 학생들의 어학 실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뿐만 아니라 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서 자주 사용하는 것이 좋은데 그 이유로는 지루한 문형연습에 지쳐있는 학습자에게 신선함을 줄 수 있고 그 문화에 대한 통찰력이 유용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Rivers(1981)가 “ Every culture has a rich repertoire of songs which are authentic, attractive, and pleasant to sing.”³⁶⁾라고 말한 것처럼 영미인들이 즐겨 부르는 노래 속에는 반드시 그들의 생생한 문화를 반영한다는 것을 유의하고 곡목과 수준 등을 고려하여 가르치면 될 것이다. 그리고 교사는 어떤 경우에 부르는 노래인지를 학습자들에게 설명 해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노래는 그 나라의 문화를 대변하여 준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한다.

36) Rivers, Wilga M.(1981), *Teaching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 Press, p.331.

다음의 Oh Susanna라는 미국 노래의 가사를 예로 들어보겠다.³⁷⁾

노래 활용의 예

Lyrics: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I'm going to Louisiana my Susanna to see.

It rained all day the night I left, the weather was so dry,

The sun so hot, I froze myself, Susanna don't you cry.

Chorus:

Oh Susanna, Oh don't you cry for me,

For I come from Alabama, with my banjo on my knee.

I had a dream the other night, when everything was still,

I thought I saw Susanna, a coming down the hill.

The buckwheat cake was in her mouth, the tear was in her eyes; Says "I'm coming from the South," Susanna don't you cry.

Chorus

이처럼 교사는 학습자들에게 이 노래를 가르쳐 주고 따라 부르게 해 본 다음 그들로 하여금 미국의 문화를 이해시키기 위해 작곡가 Stephen Foster의 위상에 대해 토론하게 한다든지 혹은 이 노래가 1849년 황금이 발견된 California 지역으로 대규모의 사람들이 급히 이주했던 California Gold Rush의 주제곡이었다고 설명해 줌으로써 미국의 음악 속에 반영된 미국인의 정신을 알도록 하면 된다.

37) Mariannne Celce- Murcia & Lois McIntosh(1979),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Newbury House Publishers, p.51-52.

3) 고급 수준 문화 지도 방안

(1) Films

영화나 비디오를 통한 문화 지도는 학습에 대한 지나친 부담감을 주지 않고 학생들을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수업에 참여시킬 수 있으며 목표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유발시켜 이를 목표어에 대한 관심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영화는 외국에 나가지 않고도 가장 실감나게 타문화를 느낄 수 있는 효과적인 매체이다. 교사는 영화를 보기 전 간략히 영화를 소개하고 중점적으로 보아야 할 부분을 미리 제시하면 좋다. 학생들은 대사를 들으면서 동시에 영상을 통해 시각적인 단서를 얻을 수 있으며 감정적인 반응을 할 수 있고 목표언어를 사용하는 자연스러운 환경을 볼 수 있다. 또한 영화는 다양한 주제와 소재를 갖고 있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색다른 경험을 제공할 수 있는 지도 방법이다.

(2) A Trip to the Second Culture Area

가장 바람직한 방법으로 목표언어 사용권에 직접 여행하거나 거주하여 체득한 사실을 말한다. 1년간 목표언어권의 사람들과 매일 부딪치면서 경험하는 영어 사용은 영어권 사용자의 문화를 이해하고 의사소통을 잘 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 하겠다. 비록 단기간의 짧은 방문이라 할지라도 이를 통하여 습득된 언어의 실감나는 연습은 다른 수단과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효과가 크다고 볼 수가 있다. 미리 습득된 언어는 이 방문을 최대한 즐길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2. 일반적 문화 지도의 방법

앞서 제시한 지도 방안 외에 우리는 교실을 하나의 문화 공간으로 활용하여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지도하는 방법이 있는데 외국어 교육의 교실내 문화수업은 학생들에게 실제 상황을 대비한 연습무대구실을 한다. 실제 상황이면 더 혹독하고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지만 교실내 문화 수업의 경우 교사가 지휘하고 학생이 틀렸을 경우 보호받을 수 있는 보호 기제가 있다는 장점이 있다. 수업에 임하기 전 문화 내용이 담긴 용이 주도한 차트를 만들어 수업 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나오면 즉시 학습자들에게 차트를 보여주며 설명하는 방법 뿐 만 아니라 게시판을 이용한 문화 지도도 가능하며 모의 게임, 노래와 춤, 신문과 잡지 등이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으며 학생들로 하여금 미리 독자적으로 스크랩 등을 준비해 오도록 하는 것도 효과적인 것이다. 교실에서의 문화지도로 다음과 같은 활동을 할 수 있겠다.



1. 역할극(Role playing)
2. 문화 캡슐(Culture capsules(short essays))
3. Audio-Motor unit
4. 실수담 소개
5. 원어민 초청
6. 프로젝트(student projects)
7. 문화 설명(culture aside)
8. 대화, 촌극(dialogues, skits)
9. 노래(songs)
10. 신문과 잡지(newspapers and magazines)

11. 축제(Festivals)
12. 게시판(bulletin board)
13. 영화(Movies)
14. 자료 수집

1) 게시판

게시판은 학습의 분위기를 상쾌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문화를 소개하는데 좋은 공간이 될 수 있다. 학습자들은 설명 만으로 시각적인 요소가 없기 때문에 그림이나 작품을 게시 해주면 시각적인 요소가 있어서 빨리 이해가 된다. 미국에서 온 그림엽서나 우표 등을 게시판에 붙여 준다.

2) 원어민 초청

학습자들이 계속 이어지는 대화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되면 영어 원어민을 초청 교사와 직접 토론하게 하여 이때 나타나는 견해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도 수업시간에 의문을 가졌던 문제를 질문할 기회를 가질 수 있다. 또한 원어민의 몸짓이나 얼굴표정, 억양 등을 통해 보다 직접적으로 문화의 일부를 체험할 수 있다.

3) 프로젝트

이 방법은 학생 각자가 외국문화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학생들로 하여금 그림을 수집하거나 스크랩북을 만들도록 하며 유명한 인물들을 구두로 말하게 하여 외국 문화를 이해하도록 교사는 지도할 수 있는 방법이다. 조 별로 다른 나라의 명절에 대해 날짜나 고유한 음식, 명절모습 등을 담은 사진 등을 조사하여 발표하게 하여 본다. 다음은 학생들이 조사하여온 Thanksgiving에 대한

숙제를 예로 들었다.

All about Thanksgiving

Thanksgiving day is a day to give thanks for the thing we have. The fourth Thursday of November is Thanksgiving. This year, Thanksgiving is November 21. There is no school on Friday. Thanksgiving is a happy holiday. Families get together on Thanksgiving. They invite friends, too. Americans like to eat a big dinner on Thanksgiving. Most people eat turkey. Other traditional foods are corn, stuffing, beans, sweet potatoes, grave, and cranberry sauce. Traditional desserts are apple pie and pumpkin pie.

4) 실수담 소개

문화간 갈등이나 문화에 대한 무지로 생긴 실수의 경험 등을 수집하여 소개하고 실수의 이유를 학생들이 스스로 찾아 말해보게 한다. 다른 문화에 대해 갖고 있는 지식, 가치관, 자세, 신념 등의 일부를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며 실수의 일화가 보통 재미있기 때문에 교육의 효과가 대단히 높을 것으로 추정된다.

5) 신문과 잡지

신문과 잡지는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는 최근의 문화정보 등의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효과적으로 이용하면 가치가 높다. 가령 우리 주변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The Korea Herald, The Korea Times, Newsweek 등의 신문과 잡지에 있는 만화, 스포츠란, 일기예보, 광고, TV프로그램, 그림 등을 자료로 이용할 수 있다. 교과서에 나타나지 않은 많은 문화의 양상을 보

여주는 것이 신문이다. 교사는 학생들에게 외국신문에서의 한 부분을 그에 상응하는 학생들이 모국어로 된 신문의 것과 비교하도록 시킨다. 사용하기에 좋은 것들은 제목, 광고, 편집후기, 스포츠, 만화, 일기예보 등에서 찾을 수 있다. 또한 잡지의 광고 등 아직 사전에 나타나 있지 않은 유용한 새로운 어휘를 잘 가르쳐 줄 수 있다.

6) 대화와 촌극

대화는 언어 학습의 초기 단계에서 사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방법으로 학생들의 나이와 흥미에 적합하고 한 언어의 문화적 행동을 명확히 보여줄 수 있는 행동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대화나 촌극을 통해 학생들은 대화에 익숙해지고 몸짓으로 역할 연출을 통하여 모든 사람과 상호 작용하는 경험을 갖게 되며 이것은 긴 설명이나 해석보다 더 가치가 있다.

7) 자료 수집



이 방법은 학생들로 하여금 미국 문화에 관한 내용을 독자적으로 계획하여 그 문화에 대한 지식을 얻도록 하는 지도 법이다. 학생으로 하여금 미국에 관한 그림을 모집하거나 스크랩북을 만들도록 하며 Lincoln 대통령이나 Columbus에 대하여 구두로 말하며 미국 문화의 배경에 깔린 개척 정신, 자유와 평등사상, 독립 정신, 실용 정신 등을 이해하도록 지도할 수 있다.

8) 축제

영어를 배우는 학습자의 입장에서 볼 때 미국의 축제를 볼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미국의 축제일이 될 때마다 교실에서 교사가 간단하게 설명하는 것은 미국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학습자에게 부여해

주는 결과가 된다.

발렌타인, 부활절, 할로윈, 독립 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등 미국의 대표적인 축제날(holidays)의 풍경 슬라이드나 유래에 대한 설명, 그리고 각 명절(Thanksgiving, Christmas)마다 등장하는 음식이나 물건에 대한 설명은 미국의 문화 이해에 호기심을 불러일으키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특히 Valentine's Day는 남녀가 서로 사랑하는 관계(연인 또는 부부)에서 같은 날 한꺼번에 기념하며 Mother's Day, Father's Day는 한국과 미국이 서로 다른 날에 기념하는 것에 대하여도 설명하여 준다. 미국에 있는 부활절(Good Friday)에 입는 의상(Easter dress)에 대한 설명은 좋은 문화소개가 된다. 특히 한국에 있는 5월 5일 어린이날은 미국의 경우 1년 365일 어린이를 사랑해주기 때문에 따로 기념하지 않음을 말하여 준다. Christmas는 각자 즐기는 것이 아니고 온 가족이 한 자리에 모여 크리스마스 선물을 교환하는 날이므로 아이들도 부모님이나 다른 형제를 위하여 선물을 준비하는데 1년 동안 자기의 용돈을 저축하거나 일을 하여 모은 돈으로 준비하는 것이지 따로 어른들로부터 돈을 받아서 준비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짚어준다.

V. 결 론

본 연구는 문화에 대한 이해가 언어에 대한 습득과 동시에 이루어지도록 교사들이 힘써야 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우리가 미국인과의 의사 소통을 완벽하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문화에 대한 지도가 어떠한 방법으로든 반드시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화와 의사 소통은 뿔레야 뿔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로서 한국인과 미국인의 의사 소통시 일어날 수도 있는 오해나 당황을 피하기 위하여 교사들은 수업 시간에 어느 정도 시간을 할애하여야만 한다.

영어 교육과 관련하여 영어권 문화와 우리 문화의 차이를 조사해 보았다. 한국인과 미국인의 대화 양식이 다르고 배경 문화, 의식구조가 완전히 상반된다는 점을 알아보았으며 또한 실제의 상황 속에서 그것이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미국문화의 특징과 연관하여 알아보았는데 우선 선생님의 호칭과 영어식 이름 붙이기, 인사하기에서 우리가 흔히 잘못하기 쉬운 점이 있었다. 말을 아끼고 상대자의 추리에 맡기는 한국인들은 상황에 의존하는 편이지만 말이 없이는 의사를 표출할 수 없는 미국인들은 언어에 의존한다. Yes, No가 분명하여 자기의 감정(희로애락)을 그때그때 바로 표현하는 것이 오히려 의사 소통시 오해될 가능성이 없다.

예전보다 쉽게 원어민(native speaker)들을 학교에서 접하게 된 현실은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원어민에 대한 적절한 예절과 문화 지도를 해 줌으로써 그들을 이해하여 의사 소통이 잘 이루어지도록 하고있다.

학습자들에게 문화를 지도하는 방안을 수준별로 구분하여 듣기 능력을 가르치고자 하는 경우에 행하는 교사가 한 상황을 설정하여 그 안에서 일어나는 동작에 관해 명령하면 신체 동작으로 반응하는 audio-motor법, 문장 속에 문화를 반영하는 내용이 나오면 수시로 간략히 설명하는 문화 지

도법, 오해나 혼동 또는 미국 문화에 충격을 느낄 수 있는 상황이 제시된 이야기를 묵독시킨 후 문제를 제시하고 가능한 4개의 답을 주어서 학생들로 하여금 정확한 답을 찾아내게 하는 문화 동화 지도법 등을 초급 수준 문화 지도법으로 하고 한, 미 두 나라의 문화적 차이를 그림, 구두 발표 등을 통해 비교함으로써 우리의 문화를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문화 캡슐지도법, 어느 정도 미국 문화에 대한 지식이 있는 학습자들이 모여 실제로 상황을 만들어 그 속의 역할을 담당하여 보는 역할놀이, 미국 문화 내용을 몇 가지 캡슐로 구성하고 거기서 얻은 내용을 종합하여 학습자들에게 30분 정도 직접 흉내를 내보도록 한 후 교사가 내용을 확인하는 질문을 제시하고 서로 토론하며 문화를 지도하는 문화 토론 지도법, 미국 노래를 불러 보거나 춤을 추어보며 그 속에 깃든 미국인들의 정신이나 배경에 관한 문화를 알아보는 법, 그 민족의 지혜를 엿볼 수 있는 속담의 본고장이 어디며 그 속에 담긴 의식 등 교훈 알아보기를 중급 수준의 문화 지도법으로 나누었고 미국 영화를 부담 없이 비디오를 통해 보거나 직접 영화관에 가서 보기, 문화 기사가 실려있는 신문이나 잡지를 통해 양 나라의 다른 문화 비교해 보기, 원어민과의 접촉, 문학책 읽기, 경제적인 부담이 따르는 미국 나라 여행하기 등을 고급 수준의 문화 지도로 하였다.

영어 교육의 필요성을 누구나가 느끼고 있는 현실에서 수면 위의 우리의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그 나라의 언어 (영어), 음식, 의복 등의 차이점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물 속에 잠기어져 있어서 우리의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의사소통 스타일, 신념, 태도, 가치, 인식 등의 중요성은 우리가 도전하여야 할 과제라 할 수 있다.

문화를 안다는 것은 여러 달 혹은 수년이라는 시간이 걸려서 습득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

이제 영어는 국제적으로 널리 쓰이고 있는 언어이다. 그러므로 영어세계의

흐름에 동참하여 국가와 사회 발전에 기여하고 세계인으로서 질 높은 문화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로 의사 소통할 필요가 있다. 영어 의사 소통 능력을 길러주는 것이 영어의 중요한 목표인 만큼 영어교육에 참여하는 사람 부터 의사 소통문화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학습자들에게 꾸준히 지도하여 미국 문화에 대한 이해를 높임으로서 홍수와 같이 밀려들어오는 외국인, 외국문물을 충격 없이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이 열린다 하겠다.



참 고 문 헌

- 강경희(1991), “문화지도를 통한 효과적인 영어교육”, 제주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논문.
- 강수언(1988), 「한국어와 영어의 비교연구」, 서울: 한신 문화사.
- 교육부(1997), 「외국어과 교육과정 (1)」, 대한교과서.
- 권순찬외 2인(1985), 「논문작성의 이론과 실제」,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
- 김숙이(2000), “초등학교 영어 교과서의 문화소재 분석”,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김영식(1986),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연구」, 한국 교육개발연구원.
- 김자경(1998), 「공격적인 포크문화, 수동적인 젓가락 문화」, 자작나무.
- 김진철(1998), 「현장 수업 적용을 위한 초등영어 지도법」, 한국 문화사.
- 박명석(1994), *Communication Styles in Two different Cultures: Korean & American*, 서울: 한신 문화사.
- 신채기(2000), 「초등영어를 위한 아이디어 250」, 흥익 미디어 플러스.
- 오성식(1995), 「오성식의 생활영어」 1권, 고려원.
- 원경식역(1980), 「언어와 문화」, 서울: 형설출판사.
- 이기준(2000), “영어교육에 있어서 한. 미간의 문화비교 연구”, 전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이어령(1962), 「한국의 풍토와 사상」, 서울: 일신사.
- 이완기(2002), 「초등영어 교육론」. 서울: 문진미디어.
- 이완기, 차경환(1999), “초등영어 문화교육의 내용과 지도방법 연구”, 「영어교육」 54권, 1호 한국 영어교육학회.

- 전상범외 5인, *English Conversation*, 금성교과서.
- 정동빈(1988), 「영어학」, 서울: 한신 문화사.
- 최용제(1982), 「외국어 교습의 원리」, 고려원.
- 홍익표외 3인(1989), *Middle School English*, 1, 2 서울: 지학사.
- 홍화숙(1999), “초등영어 지도서 분석을 통한 문화지도 내용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_____ (1986), 「외국어 교육방법 개선 연구」, 한국 교육개발원.
- Adaskou, K., Britten, D. and Fashi, B.(1990), “Design Decisions on the Cultural Contents of a Secondary English Course for Morocco” , *ELT Journal*.
- Brown, Douglas H.(1980), *Principles of Language Learning and Teaching*,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Celce-Murcia Marianne & McIntosh, Lois(1979),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or Foreign Language*, House Newbury Publishers.
- Church, Nancy & Moss, Anne(1983), *How to Survive in the U. S. A*, Unit 1. Cambridge University Press.
- Edward, Hall T.(1959), *The Silent Language*, New York: Double Day.
- Klopf, Donald W. & Myung-seok Park(1982), *Cross Cultural Communication: An Introduction to the Fundamentals*, Seoul: Han Shin Publishing Co.
- Lado, Robert(1988), *Teaching English Across Cultures*, Singapore : Kim hup Lee Printing Co.
- Lado, Robert(1957), *Linguistics Across Cultures: Applied Linguistics for Language Teachers*, The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Lafayette, Robert C.(1978), *Language in Education: Teaching Culture*
Arlington Virginia: A. A Hill Library.

Lessard-Clouston(1992), “Assessing Culture Learning: Issues and
Suggestions” , *The Canadian Modern Language Review*.

Levine, Deena R. *et al.*(1987), *The Culture Puzzle*, Prentice Hall.

Levine, Deena R. & Adelman, Mara B.(1982), *Beyond Language*,
Prentice Hall, Inc.

McGroarty, Mary & Galvan, Hose R.(1985), *Culture as an Issue
in Second Language Teaching*, Newbury House
Publishers, Inc.

Rivers, Wilga M.(1972), *Speaking in Many Tongues: Essays in
Foreign Language Teaching*, Massachusetts:
Newbury House Publishing Inc.

Rivers, Wilga M.(1981), *Teaching Language Skills*, 2nd ed., Chicago:
Chicago Univ. Press.

Seelye, Ned H.(1985), *Teaching Culture*, Illinois: National
Textbook Co.

Zanger, Virginia Vogel(1993), *Face to Face*, Heinle Publishers.

(Abstract)

Teaching Culture in English Education

Choi, Young Hee

English Education Major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Supervised by Professor Hyun, Wan Song

Cross-cultural communication in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is unique in that it encompasses language learning and culture learning. When communicating in English in the U. S. A.,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eir culture and sub-cultures, not only to prevent misunderstandings, but to enhance the communication.

Obviously, you would not approach the president of General Motors and say “Slip me skin” (a type of handshake). However, you may compliment a person’s favorite golfer for doing the “hat trick” (winning the three most important titles in one year).

Expressions, words, and phrases reflect the culture and it’s history. As the culture evolves, so does the language. New words and expressions

※ A thesis submitted to the committee of the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Cheju National University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Education in English in August in 2002.

become popular and often old ones fade away.

Examples of cross-cultural interactions describe patterns of communication and cultural background may help students understand their own culture and other's culturally influenced style of communication. Cultural differences often create predictable communication difficulties for student.

Using the language of a sub-culture could be very inappropriate in a business meeting. Using outdated expressions could make the speaker appear odd and out of the touch with the contemporary world.

Some words are in vogue for a while, but can become perjorative; particularly when referring to a certain group of people. Expletives or swear words are appropriate in some contexts but not others.

Knowing the culture can help the speaker or writer, in avoiding an undesirable reaction or response. Basic English and politeness can be taught in a classroom, but the finer nuances of language and culture are learned by experience and verbal and social intercourse. The person or company with whom you are communicating will have a higher comfort level in dealing with you, if you understand better their culture.

Therefore, to overcome cultural differences and to promote the efficiency of English education, it is desirable to use the following techniques: Culture Asides, Culture Assimilators, Culture Capsules, Culture Clusters, Audio Motor Unit, Role Playing, Cultural Minidrama, Proverbs, Songs and Dances depending on student's English level. The other techniques that can be done in the E. F. L classroom are bulletin boards, contact with native speakers, Student projects, etc.

In conclusion, keeping it in mind that the true sense of English learning is achieved through understanding the cultural background in which the language is uttered, English teachers should make an effort to teach the contents of American cultures.

